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아·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문화 하이브리드 (제1보)

최 호 정·하 지 수**

서울종합예술학교 패션예술학부 전임교수·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교수**

Asian · African · Latin American Cultural Hybrids in Modern Fashion (1)

Ho-Jeong Choi · Ji-Soo Ha**

Prof., Dept. of Fashion Art, Seoul Art College

Associate Prof.,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10. 2. 접수; 2007. 12. 5. 채택)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Asian, African and Latin American cultural hybrids in modern fashion, and offers a direction for desirable cultural hybrids in modern fashion.

First, the cultural hybrids have been considered in two aspect: global hybrids and structural hybrids. Second, the trends of Asian, African and Latin American cultural hybrids have been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ultural backgrounds of each area. However, the cultural hybrid representing the change of tradition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is a common trend, and is used to describe the social changes. Third, this study examines the global hybrid trend in modern fashion based on the hybrid trend of Asian, African and Latin American culture found in the four major collections from 2000 S/S to 2005 F/W. Until recently, the exotic images have been determined in the viewpoint of Western world, and utilization by the world-renowned designers in the four major collections plays the major role in converting the regional cultural elements into global ones. Fourth,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structural hybrids in modern fashion based on the hybrid trend found in Asian, African and Latin American designer collections between 2000 S/S and 2005 F/W. The works which are connected to the world trend, but are also rooted from the cultural and regional traditions demonstrate the globalization of the Asian, African and Latin American fashion. Fashion is a messenger of a culture, and its importance as a symbol of a cultural trend is growing.

Key Words: Globalization(세계화), Cultural Hybrid(문화 하이브리드), Global Hybrid(글로벌 하이브리드), Structural Hybrid(구조적 하이브리드)

Corresponding author ; Ji-Soo Ha

Tel. +82-2-875-8359, Fax. +82-2-875-8359

E-mail : Jisooha@snu.ac.kr

※ 본 논문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10956) 2차년도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맥락에서부터 시작된 '세계화'(Globalization)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1990년대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가속화된 세계화는 우리 시대의 문화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계화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세계화는 깊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나, 최근 경제적 측면에서 가속화된 세계화는 문화와 생활 양식면에서 범세계적으로 보편성을 띠는 형태로 나타나며, 보편적인 이미지는 주로 서구적인 것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이룬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관습들 사이의 새로운 융합을 만들어내면서,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화의 변화는 하나의 요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지역주의를 강조하거나 지역주의와 동반되는 보편과 특수이 공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 시대 문화적 전통에 대한 탐구는 지역/글로벌, 서양/동양, 전통적/현대적 등과 같은 이분법을 거부하고, 서구 문화에 대해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월성을 찾아내는 과정으로¹⁾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지역 변화를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자문화의 재현과 관련된 요소들과 매커니즘의 성격은 각 민족마다 각기 다른 맥락을 이루고 있다²⁾.

복식은 문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 양상으로 문화체계의 일부이며, 문화적 전통의 한 표현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각 나라의 민속 복식은 민족 고유의 미적 표현이 담겨있으며, 민족을 상징하는 미의식이 표현되어진 것이고, 복식은 시대의 사고와 느낌을 표현하며 그 시대의 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변하여 왔다. 문화를 대변하는 여러 복식 스타일 중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 디자이너들의 현대패션에서 자문화의 요소가 반영된 복식은 서양복이 일상복으로 자리잡은 후, 전통적 미의식과 서양의 미적 가치가 공존하면서, 복식에 있어서 디자인 정체성의 갈등을 겪은 이후 자문화의 가치가 재발견되어 나타나는 복식으로 주목된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복식 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첫째, 시대 변화에 따른 전통복식의 변화와 현대패션에 반영된 전통 미의식에 관한 연구 (남궁민지(2000), 박경희(2002), 성희진(2002) 외)³⁾, 둘째, 세계 컬렉션의 유행경향으로 부각되는 에스닉 패션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다. (박상오(2002), 장승미(2001), 하수정(2005) 외)⁴⁾ 첫째 선행 연구의 경우 전통미의 재현으로 나타나는 복식의 가시적 조형성을 분석하는 것에 주목함으로써 포괄적인 자문화의 변화를 보는 시각과 원인의 고찰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 둘째 선행 연구의 경우,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유행경향으로서 서구의 디자이너가 표현하는 에스닉 패션과 현대패션에서 자국 디자이너들의 자문화의 세계화 경향을 표현하는 복식을 혼용하여 분석되는 경우를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으며, 또한 서구 복식이 보편화된 이후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디자이너가 자문화의 세계화 경향을 표현하는 복식의 형태와 의미의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1보>에서 <제2보>에 걸쳐 첫째, 세계화와 문화의 특성, 세계화 속에 나타나는 문화적 속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 경향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로 나타나는 세계 문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문화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별 문화의 하이브리드 경향을 고찰한다. 셋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 하이브리드 경향을 사례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고찰·분석하여 지역별 문화 하이브리드 경향을 구체화한다. 넷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 하이브리드 경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연구를 통해 현시대 문화의 새로운 상징과 문화 표현 방식, 의미의 변화를 고찰하고 전통적 미와 현대적 미 표현의 구체적 연계성 및 조형성을 파악함으로써 문화 해석 단서로서의 복식의 위상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서구 복식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이후 비주류로 인식되어왔던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주제로 한 글로벌한

시각과 복식을 통한 세계화의 의미나 과제로 논의하고자 하며, 현대패션에서 바람직한 문화 하이브리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 하이브리드 경향에 관한 연구 문제 수행을 위해 문헌 연구, 사례 연구, 전문가 집단 조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사례연구의 경우 <제1보>에서는 내용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를 <제2보>에서는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국가 및 디자이너의 선정은 firstview.com과 firstviewkorea.co.kr의 디자이너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0 S/S에서 2005 F/W의 세계 4대 컬렉션(파리, 밀란, 뉴욕, 런던)과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문화 하이브리드 경향의 사례를 나누어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사례선정의 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패션디자이너 전공한 대학원생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사례의 적합성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II. 문화 하이브리드

1. 문화 하이브리드의 개념 및 특성

문화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역과 정체성을 초월하여 문화적으로 혼합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융합주의(Syncretism), 크레올화(Creolization), 메티사쥐(Metissage), 메스티자예(Mestizaje), 크로스오버(Crossover)등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며, 또한 관련된 개념으로는 글로벌 보편주의(Global Ecumene), 글로벌 지역화(Global Localization), 지역적인 글로벌화(Local Globalization) 등이 있다. 하이브리드의 이론에 따르면 세계화 과정의 결과는 열려 있으며, 지역은 곧 세계요 세계는 곧 지역이라는 입장으로 현재의 세계화는 서구화 과정인 동시에 동양화 과정이며 그 밖의 여러 문화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다. 물론 문화

하이브리드는 한 문화의 내부 요소들과 사회내의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⁵⁾. 문화 하이브리드는 융합의 정책을 가리키며,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로 타 문화와 공존함으로써 새로운 초문화적 패턴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⁶⁾.

1) 글로벌 하이브리드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서구 문화들의 하이브리드를 말하며, 세계 문화를 글로벌 혼합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뜻한다. 글로벌 하이브리드로 나타나는 민족 문화의 뒤섞임은 이국주의 유행의 관점을 넘어 범 문화적 유사성, 친화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기든스에 의하면 이는 문화적 차원에서 거대한 체계적 변화와 지역적이고 친숙한 우리의 일상적 경험세계에서의 변형들 간의 연계를 의미한다⁷⁾. 세계화 과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이론가들은 ‘탈영토화’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과정의 양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탈지역화’(de-localization)나 ‘장소이탈’(displacement)과 같은 관련 용어들을 선호해왔다⁸⁾. 기든스는 탈영토화를 ‘사회관계들을 지역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끄집어내어 무한한 시공간대에 걸쳐 재구성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서구 문화의 수용,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다른 지역 문화들이 서구 문화에 미친 영향과 지역간의 문화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는 혼합화 과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이국주의의 유행의 관점을 넘어 세계화의 논의에서 다소 간과되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역의 문화가 서구문화에 미친 영향과 또한 통합론에서 과소평가되었던 세계화가 갖는 이중적 의미 즉 서구 문화의 지역적 수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⁹⁾. (Jan Nederveen Piererse, 2004)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시대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특히 현대패션에서 탈영토화된 지역 문화 요소들의 하이브리드로 나타나는 복식의 특성을 논함에 있어 ‘글로벌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2) 구조적 하이브리드

문화 하이브리드는 한 문화 내부 요소들과 사회내의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구조적 하이브리드는 한 문화 내부에서 '지역 문화의 형태가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다른 관습의 새로운 형태와 결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로버트슨에 의하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특정주의의 세계화' 혹은 '특정 아이덴티티가 글로벌한 가치를 부여받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내, 국가 내부의 변화를 '구조적 하이브리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흔히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말처럼, 지역주의를 강조하거나 지역주의와 동반되는 글로벌화 현상으로 설명되며 민족적 정체성의 새로운 대두, 민족 정체성의 재건 등 역시 이러한 세계화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영토적 특성에 기반한 문화의 확산 및 문화의 세계화와 관련이 있으며, 전통이나 지역 문화가 현대에 맞는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성을 함양하는 의미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적 특징을 주장하면서도 글로벌한 차원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에도 역시 동참하길 원하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 정체성의 패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¹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식의 변화로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타문화와 공존하기 위한 국가, 지역 문화의 형태적 변화를 논함에 있어 특히 현대패션에서 자문화의 하이브리드로 나타나는 복식의 특성을 논함에 있어 '구조적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2.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하이브리드

세계화 시대 세계문화는 서구 문화의 확산이 가져온 지역 문화의 변화만이 아니라 탈 영토화된 다양한 지역 문화 요소들의 뒤섞임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하이브리드와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세계적 연계성 속에 지금 시대에 맞는 국가·지역 차원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창조하려는 지역 문화의 구조적 하이브리드

로 나타나고 있다.

1)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세계화 시대 탈영토화 된 지역 문화의 뒤섞임으로 나타나며, 세계인의 의·식·주 영역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계 문화 속에 나타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생활에 나타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다른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인도의 뉴에이지 수행법, 파시미나 술, 인도풍 장식을 활용한 의류, 악세서리, 웨이즐리 문양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멕시코의 전통의상인 케스케미틀은 판초형의 편안함과 자유로운 의상의 특성으로 세계화되었으며, 브라질 리우 카니발의 화려한 축제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티어드 스커트는 이미 세계인의 일상복에 자연스럽게 도입되고 있고, 발목을 묶어주는 라틴 댄스 전용 슈즈 역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두가 되었다. 아프리카 문화 요소가 세계인의 의생활에 나타나는 사례는 의상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문신, 악세서리 등 다양한데, 동아프리카 수렵 여행시 기능적으로 착용하던 사파리풍의 의복은 전세계인의 의생활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계인의 의복이 되고 있고, 또한 블레이즈(blaze), 드레드(dread), 콘로우(cornrows) 등 아프리카의 헤어스타일은 원래의 기능적인 목적에서 세계적인 패션 스타일로 변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부족의 표시나 주술적 의미가 담겨있던 타투는 현대에 와서는 멋과 개성을 의미하는 악세사리로 여겨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장신구 특히 벵글, 비즈 목걸이, 피어싱 등은 현대패션에서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다.

의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국적 취향은 최근의 경향이 아니며, 과거 중국에서의 비단 수입에서 시작해 1910년대 폴 푸아레(Paul Poiret)의 동양풍 의상에 이르기까지 이국풍에 대한 관심은 서구의 패션 문화의 탈출구이자 새로운 영

감의 원천이 되어왔으며, 매시즌 새로운 패션을 강요하는 서구 패션 디자인의 혁신의 원천으로서 다른 지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은 1990년대 이후 더욱 되고 있다¹¹⁾.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화 시대에 나타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비주류 문화가 아닌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2)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의 구조적 하이브리드

문화 하이브리드는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 하이브리드는 대체로 선택되고 의지에 의한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경제발전으로 아시아인들은 자신감과 자긍심을 성취하게 되었으며, 자문화의 고유성을 역설하고 우월성을 강조한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근대화를 사회적 정치적 하이브리드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부족문화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현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아프리카의 발전과 현시대에 걸맞는 아프리카 문화 창조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하이브리드는 라틴 아메리카를 ‘이중적 사회’로 지칭하게 만들었던 식민지의 경험과 혼혈인종인 크레올과 원주민들 사이의 분열의 문제, 독립 이후에도 미국의 인접국으로 미국의 신식민지로 분류되고있는 현실속에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부여된 운명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사상가들은 지역역사를 축으로 서구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틀을 모색해왔으며, 라틴 아메리카속의 라틴 아메리카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의 요구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지역별로 문화 하이브리드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의미는 다르나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어느 곳에서도 전통의 변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반식민주의, 탈식민주의, 개발 등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에 관

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세계적인 이미지를 만들 때 자신의 정체성과 배경이 큰 역할을 하며,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의생활에 나타나는 구조적 하이브리드는 일상복 보다는 주로 의례복 영역에 국한되어 입혀지던 전통 복식의 요소를 활용한 패션디자인을 통해 전통을 현대화하고 또한 세계화 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2000년 이후 많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 디자이너의 세계 컬렉션 진출이 확대되면서 컬렉션을 통해 세계적인 보편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전통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세계 컬렉션을 통해서 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지역별 패션 주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린 콘도(Dorinne Kondo)는 *About Face* 에서 많은 비서구 문화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을 자발적인 이국적 시각이라 불렀다. 이는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를 ‘이국적’ 상품으로 전환시킨 다음 이를 다시 세계에 제공하는 것이다¹²⁾.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전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현시대 재창조되는 지역 정체성은 하이브리드의 과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역/글로벌, 서양/동양, 전통적/현대적 등과 같은 이분법을 거부하는 지역별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문화 하이브리드

1. 현대패션에 나타난 글로벌 하이브리드

1) 4대 컬렉션의 디자이너 선정

4대 컬렉션에 나타난 글로벌 하이브리드의 지역별 영향정도를 파악하고,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구조적 하

<표1> 4대 컬렉션에 나타난 글로벌 하이브리드

	2000 S/S	2000 F/W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Lanvin · 인도 ; Leonard, Isabel Marant · 중동 ; Alexander Mcqueen · Mix & Match ; Dries Van Noten, Cristian Lacro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Celine, Leonard, Marcel Maromgiu · 중동 ; Chloe, Isabel Marant · 아프리카 ; Isabel Marant, Emmanuel Ungaro
밀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Giorgio Armani, Blumarine, Alberto Biani · 인도 ; Alberta Ferreti, Etro · 한국 ; Philosophy · 아프리카 ; Blumarine · 말레이시아 ; Etro · 멕시코 ; Moschino · Mix & Match ; Sport M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Antonio Marras, Krizia, Jill Stuart · 인도 ; Etro, Philosophy, Etro · 아프리카 ; Antonio Berardi · 라틴 ; Antonio Marras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Matthew Williamson · 중국 ; Matthew Williamson · 말레이시아 ; Paul Smi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일본 ; Paul Smith · 인도 ; A.Scott Henshall, Margaret Howell · 아프리카 ; Alexander Mcqueen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Cynthia Rowley · 라틴 ; Marc Jacobs · Mix & Match ; Cynthia Rowl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Oscar de la Renta, Nicole Miller, Custo Barcelona · 중국 ; Cynthia Rowley · 라틴 ; Jill Stuart
	2001 S/S	2001 F/W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Dior · 인도 ; Dior, Dice Kayek · 일본 ; Chacharel · 아프리카 ; Ce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Joe Casely Hayford, · 일본 ; Emmanuel Ungaro, Christian Lacroix · 아프리카 ; Bernard Willhelm · Mix & Match ; Chloe, John Galliano
밀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Etro · 일본 ; Max Mara · 아프리카 ; D&G, Sport Max, Miguel Adrover · Mix & Match ; Trend Les Copaines, Alberto Bian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Etro · 일본 ; Ferragamo · Mix & Match ; Maviella Burani, Trend Les Copains, Salvatore Ferragamo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Mattew Williamson · 말레이시아 ; Alexander Mcqueen · 일본 ; Clements Ribeiro · Mix & Match ; Alexander Mcqueen, Dai R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Ponit Zilkha · 일본 ; Tristan Webber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Paul Smith · 라틴 ; Michael Kors
	2002 S/S	2002 F/W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 Lauren Mercier · 아프리카 ; Yves Saint Laurent · Mix & Match ; Jean Paul Gaut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Etro, Isabel Marant, Ungaro, John Galliano,
밀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Miu Miu, Et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Gianni Versace, Etro · 중국 ; Giorgio Armani,, Marni, Strenesse · 한국 ; Sterenese · 일본 ; Max Mara · 중동 ; Antonio Marras · 아프리카 ; Trussardi · 라틴 ; D&G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 Blaak, Boyd, Emma Co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Victor & Rolf · 중국 ; Andrew GN · 중동 ; Tristan Webber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 Michael K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Mattew Williamson, Jill Stuart · 중국 ; Jill Stuart · 아프리카 ; Castel Bajac

<표1> 계속

	2003 S/S	2003 F/W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Dries Van Noten, Isabel Marant · 일본 ; Leonard · 중동 ; Lanvin, Castel Bajac · 아프리카 ; Dries Van Noten, Lanvin, Isabel Marant, Valentino, Paco Rabanne, Gyvinchy, Clements Ribeiro, Scherrer · 라틴 ; Ungaro · 인도네시아 ; Balman · Mix & Match ; Balenciaga, Castel Bajac, John Galia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 Alexander Mcqueen · 한국 ; Romeo Gigli, Vivienne Westwood, Rochas · 아프리카 ; Nina Ricci, Lanvin · 라틴 ; Guy Laroche
밀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Roberto Cavalli, Miu Miu, Bluemarine · 인도 ; Gattioni, Ferragamo, Etro · 한국 ; John Richmond, Bluemarine · 아프리카 ; Prada, Ferragamo, Gattioni, Versace · 일본 ; Ferre, Max Mara, Gucci · 라틴 ; Gattioni · Mix & Match ; Ice Berg, Trussar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Carilina Herrera · 일본 ; Fendi · 인도 ; Etro · 한국 ; Alberta Ferretti, Calorina Herrera · 아프리카 ; Roberto Cavalli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 Clements Ribeiro · 아프리카 ; Boyd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Oscar de la Renta
	2004 S/S	2004 F/W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Ungaro · 중동 ; Romeo Gigli · 아프리카 ; Romeo Gigli · 라틴 ; Andrew 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Yves Saint Laurent · 아프리카 ; Dior, Christian Lacroix · 라틴 ; Torrente · Mix & Match ; Galiano
밀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Etro · 일본 ; Alessandro Dellacqua, Fendi · 중국 ; Cuato Barcelona · Mix & Match Ferre, Prada, Moschi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Etro · 중동 ; Roberto Cavalli · 일본 ; Cividini
런던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 Donna Ka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 Chloe
	2005 S/S	2005 F/W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Ungaro, Galiano, Etro Dries Van Noten · 아프리카 ; Chacharel · 일본 ; Alexander Mcqueen · Mix & Match ; Costume N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 Babara Bui, Costume National · 라틴 ; Isabel Marant, Alexander Mcqueen. Chacharel
밀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Giorgio Armani · 인도 ; Philosophy, Blue Marine, Etro, Just Cavalli, Moschino, Gai Mattiolo · 아프리카 ; Fendi, Blue Marine, Gucci, Mami, Ferre · 일본 ; Lancetti · Mix & Match ; Trussardi, Fer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Miu Miu, Etro · 러시아 ; Just Cavalli, Ferre, Gucci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D Squared · Mix & Match ; Gi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 Eley Kishimoto, Jens Laugesen, Temperley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Oscar de la Renta · 아프리카 ; Jil Sander · Mix & Match ; BCB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 Diesel, Oscar de la Renta, Michael Kors, Donna Karen

이브리드로 나타나는 복식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진출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2000 S/S에서 2005 F/W 4대 컬렉션에 나타난 글로벌 하이브리드를 분석하였다. 4대 컬렉션의 경우 1차적으로 파리, 런던, 밀란, 뉴욕의 컬렉션 분석을 통해 지역 문화의 하이브리드가 나타난 디자이너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디자이너의 전체 컬렉션 분석을 위해 firstview.com의 그림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표1>과 같다. 컬렉션 분석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은 제외하였으며, 여러 지역 문화 요소의 혼합으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는 믹스 & 매치(Mix & Match)로 표시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 이후 4대 컬렉션에서는 인도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영향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지역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특정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중국은 치파오와 용문양, 인도는 페이즐리, 라틴 아메리카의 판초 등 특정 국가의 특정 복식의 형태나 모티프를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미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러 나라의 특성이 혼용되어 표현되는 문화 요소의 믹스 & 매치 역시 강세로 나타났다.

2)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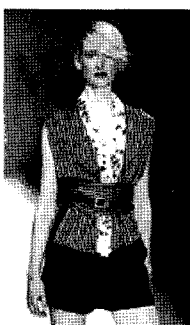
아시아 지역은 오랜 역사동안 서구인들의 동

경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며, 아시아 지역 민속 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에스닉 패션은 4대 컬렉션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로 많은 디자이너들의 영감이 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인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국가별로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켜 온 지역으로 전통 문화나 전통 의상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2000년 이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시아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 경향 중 중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 전통 의상인 치파오(Qipao)의 형태를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치파오는 입생로랑, 아르마니 등 다수의 탑 디자이너의 디자인에 영감을 주고 있으며, 중국 전통 복식의 슬릿이 주는 섹시함과 중국의 고유한 미가 현대 패션 디자인에 어우러져 다양하게 응용되었다. 또한 중국의 화려한 직물디자인 특히 용문양 등의 활용도 다수 나타나며, 많은 디자이너들이 치파오의 형태를 활용한 블라우스를 미니스커트나 팬츠 등과 코디하여 중국 전통 복식에서 영감을 얻었으나 중국의 전통을 계승하기보다는 현대적인 감성에 맞게 활용하고 서구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고 있다<그림1-1>. 일본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다수의 디자이너가 일본의 전통 복식 기모노를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일본의 기모노는 소재, 색상, 문양 면에서 매우 풍부한 디자인 영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모노의 앞자락을 겹쳐서 여미는 오미는 거의 필수적으로 응용되는 디테일이다. 또한 꽃, 나비, 새등 섬세한 자수나 프린트 등으로



<1-1>
Robrta Cavalli 03 S/S



<1-2>
Lancetti 03 S/S



<1-3>
Etro 02 S/S



<1-4> Alexander
Mcqueen 00 F/W



<1-5>
Chloe 04 F/W

<그림1>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

<표2>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구조적 하이브리드 (2000 S/S-2005 F/W)

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12명중 8명)	일본 (30명중 11명)	한국 (50명중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vienne Tam (11) · Vera Wang (10) · Avvisuar (5) · Wang Hong (1) · Liang Zi (1) · Luo Zheng (1) · Gu Yi (1) · Fang Ying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hji Yamamoto (9) · Comme des Garcons (13) · Issey Miyake (12) · Yoichi Nagasawa (8) · Hiromichi Nakako (6) · Akira (6) · Kenzo (11) · Youhiki Hishinuma (6) · Kayiko (1) · Miki Fukai (3) · Miho Miho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e Younghee (7) · Ji Haye (8) · Jin Teok (5) · Lee Sang Bong (7) · Kang Ki Ok (2) · Enzuvan (5) · Kim Sam Sook (4) · Lee Kyu Rye (3) · Park Younsoo (5) · Son Jungwan (5) · Shin Jangkyung (4) · Sul Yun Houng (3) · Vack Yuunzung (1)
남부아시아 (인도 43명중 3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hishek Gupta (10) · Anant (2) · Anand Jon (5) · Anjana Bhargav (1) · Anju Modi (2) · Anshu Arora Sen (1) · Aparna Chandra (1) · Aparna Jandari (1) · Araiya (1) · Ashima and Leena (2) · Ashish Pandey (2) · Ashish Pandey (2) · Ashish Soni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ndhi & Khanna (2) · Deepika Govind (2) · Geisha Designs (2) · Kotawara (2) · Malini Ramani (2) · Mandira Wirk (1) · Manish Arora (2) · Manju & Bobby Grover (1) · Monapali (2) · Monish Jaising (2) · Neeta Bhargava (1) · Poonam Bhagat (1) · Pria Kataria Puri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yadarshiniRao (2) · Puja Nayyar (2) · Raghuvendra Rathore (2) · Rina Dhaka (2) · Ritu Kumar (2) · Sabyasachi Mukherjee (3) · Shantanu & Nikhil Mehra(1) · Suneet Varma (1) · Swapan and Seema (2) · Varun Bahl (1) · Jattin Kochhar (2) · Anamika Khanna (2) · Studio Valaya (1)
서남 아시아		
레바논 (4명중 3명)	이란 (1명)	터키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haled (4) · Elie Saab (11) · ZuhairMurad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tayone Adeli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ssein Chalayan (11) · BaharKorcan (2) · Bora Aksu (4)
아프리카 (10명중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 Net a anglogoid (1) · D Pollard Don Te Jer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cy Lee (1) · Clivre Rundle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julian (1) · Malcolm Kluk (1) · Bonga Bhengu(1)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6명중 5명)	볼리비아 (1명)	멕시코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los Miele (6) · Fause Hatén (11) · Ellus (11) · Ellus2nd Floor(1) · Andre Lima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ita Dongre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vid Rodriguez (8)

* ()의 숫자는 firstview.com.과 firstviewskorea.co.kr에서 검색 가능한 해당 디자이너의 2000 S/S에서 2005 F/W 컬렉션 횟수

전통 문양을 활용한 사례와 일본의 유카타, 가부키풍의 메이크업 등 역시 일본 문화를 표현할 때 다수 응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2>. 한국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한국 전통복식인 한복의 형태나 디테일, 문양의 일부를 응용하여 나타나는 정도이며 아직은 중국의 치파오나 일본의 기모노 같은 한국풍을 대표할 만한 특징적인 상징이나 활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도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2000년 이후 4대 컬렉션에서 매시즌 빠짐없이 나타나는 트렌드이다. 이는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국가로 주목받는 인도의 국가적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며, 4대 컬렉션의 경우 페이지리의 활용이 가장 비중있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페이지리를 활용하여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디자이너 짐모 에트로(Gimmo Etro)의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에트로 이외에도 많은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그림1-3>. 서남아시아의 경우 튜닉, 샤프와르, 터번, 베일 등 서남아시아의 복식을 어두운 컬러나 강렬한 컬러 대비로 표현하여 서남아시아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화려한 악세서리나 아라베스크 문양등을 서구 복식에 접목시킨 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동물 문양이나 아프리카의 전통 직물디자인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다수 나타나며, 서아프리카 전통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몸을 감싸는 랩퍼나 카프탄 스타일, 마사이족의 전통복식의 형태를 차용하였으나 원색의 비즈 대신 메탈릭한 재료나 골드 등을 활용하여 서구인에 의해 재해석된 아프리카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나무와 조개, 상아, 깃털 등을 활용해 아프리카 부족 문화를 상징하는 목걸이와 팔찌, 발목 장식, 귀걸이 같은 아프리카의 화려하고 대담한 장신구를 과장된 느낌으로 표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그림1-4>.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라틴 아메리카 인디오의 판초형 상의인 케스케미틀을 다양한 소재와 프린트로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를 연상시키는 삼파, 탕고 등 스페인 문화와

혼합된 정렬적이고 화려한 분위기보다는 라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과 인디오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원시적이고 소박한 무드로 표현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그림1-5>.

2. 현대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하이브리드

1)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선정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구조적 하이브리드 경향을 고찰하기 위해, firstview.com과 firstviewkorea.co.kr의 디자이너 리스트를 기준으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 디자이너의 컬렉션 참여가 시작된 것은 2000년 이후이며, 지역별 디자이너는 동아시아 5개국 106명, 동남아시아 3개국 7명, 서남아시아 5개국 10명, 남부아시아 1개국 43명, 아프리카 지역 10명, 라틴 아메리카 5개국 11명, 총 187명의 디자이너가 검색되었다. 지역별 디자이너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서구화된 복식만으로 컬렉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으며, 자문화의 구조적 하이브리드가 나타난 디자이너는 <표2>와 같다.

2)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구조적 하이브리드

아시아 지역은 서구화를 적극 수용하여 복식의 서구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비서구 지역중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통 문화를 간직한 지역이다. 2000년 이후 아시아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자문화의 구조적 하이브리드 경향중 중국은 다른 동아시아 비역에 비해 소수의 디자이너만이 검색되었고, 비비엔 탐, 베라 왕 등을 제외한 중국 디자이너의 컬렉션 횟수는 적으나, 대부분의 중국 디자이너 컬렉션의 경우 자문화의 구조적 하이브리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는 4대 컬렉션에서 나타난 치파오, 용문양, 붉은색

등 제한된 의미로서의 중국 전통의 활용이 아닌 다양한 중국의 문화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색채 배합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었다. 현대패션에서 중국풍은 서구의 시각에 의해서 흔히 결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과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 디자이너에 의해 중국의 문화를 세계적 보편성으로 변화시킨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하이 탕’(Shanghai Tang), Shirley Yeung Laam의 ‘차이나 레인’(China Lane)은 중국 문화의 성공적인 구조적 하이브리드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중국 문화를 창조하고 있으며, 런던, 파리, 그리고 상하이에 매장을 열면서 자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 하고 있다<그림2-1>. 일본은 검색된 30명의 디자이너 중 11명의 컬렉션에서만 자문화의 요소가 나타났고, 대부분의 일본 디자이너 컬렉션은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서구화된 복식만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문화의 구조적 하이브리드는 이미 1980년대 초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레이 카와쿠보, 하나에 모리, 겐조 등 일본 디자이너들의 성공적인 파리 컬렉션 진출로 주도되었다. 이들은 일본의 전통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전통을 기능과 가격 면에서 오늘날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도록 만들 수 없다면, 전통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한 자문화의 성공적인 구조적 하이브리드로 일본의 조형미는 전세계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서구 지역 디자이너들 중 가장 먼저 전통의 세계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2-2>. 한국 디자이너 컬렉션의 경우 50명의 디자이너중 13명의 컬렉션에서만 자문화의 구조적 하이브리드가 나타나며,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이너는 이영희, 설윤형 정도이고, 대부분의 경우 시즌 컬렉션의 포인트로 자문화의 요소를 표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1980년대의 세계화, 다문화, 개방화, 개성화에 따른 사회 문화적 현상과 함께 전통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디자이너 이상봉이 선보인 한글을 패션과 접목시킨 디자인이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는등, 성

공적인 문화 하이브리드를 통해 한국의 패션도 국제적인 흐름을 같이하면서 그 속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양상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00년에 시작된 라크메 패션 주간을 통해 한편으로 서구의 패션과 연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고유의 문화와 연결되는 특이한 방식에 대한 모범적인 예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된 43명의 디자이너중 39명의 컬렉션에서 자문화의 구조적 하이브리드가 나타났다. 리투쿠마, 매니쉬 아로라 등 인도 디자이너의 컬렉션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지역’ 카테고리 리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글로벌/로컬의 이분화된 틀로 나눌 수 없으며, 인도의 패션이 진정으로 세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³⁾<그림2-3>. 서남아시아의 복식은 현재에도 서구의 생활양식을 거부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정치적인 참여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복을 통한 정치적 표현은 서남아시아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도 나타나는데 터키 출신의 디자이너인 후세인 샬라얀은 패션디자이너를 통해 전통을 정치적인 메시지가 깔려있는 디자인으로 풀어냈으며, 그의 디자인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중동의 전통이 스며들어 있다. 서남아시아는 현재까지도 종교적,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적 특성을 반영하는 듯, 디자이너별로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자문화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전체 컬렉션에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서구 복식에 자문화의 요소를 가미하는 경우보다 서남아시아의 전통을 고수하는 경향이 다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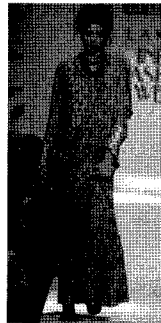
2000년 이후 아프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자문화의 구조적 하이브리드는 4대 컬렉션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원시적인 느낌보다, 착장방식의 변화, 현대적인 소재의 활용, 간소화된 악세서리등으로 모던하게 표현된 아프리카 문화, 글로벌 보편성의 수용을 강조한 컬렉션의 구성을 통해 현대 아프리카의 변화를 복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줄리베(Xuly Bet) 라벨을 소개한 말리 출신의 라민 쿠야테(Lamine Kouyate)의 디자인은 세계 패션계에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디자인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아프리카의 전통이 스며들어 있다. 또한 1997년에 시작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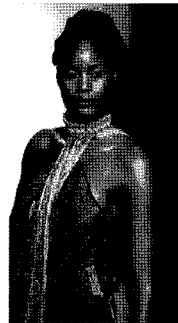
<2-1> Luo Zheng
04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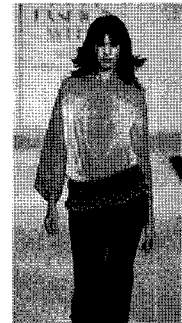
<2-2> Youhji
Yamamoto 05 F/W



<2-3> Sabysachi
Mulherjee 04 F/W



<2-4> M.Net a
Angloloid 01 S/S



<2-5> Anita Dongre
03 S/S

<그림2>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구조적 하이브리드

아프리카 패션 주간 역시 아프리카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아프리카는 이러한 패션 주간을 통해 한편으로는 국제적 트렌드와의 연결을 시도하면서도 패션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¹⁴⁾<그림2-4>.

글로벌 패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도 지역 문화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인디오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문양이나 복식을 패션디자인에 접목시킨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설립된 멕시코의 피네다 코발린(Pineda Covalin)은 스페인 점령 전의 멕시코 문화에서 영감을 발견하고 전통적인 멕시코의 의식과 관습, 신화를 지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피네다와 코발린은 1994년 여름 유카탄(Yucatan)에서 얻은 영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타이와 쇼울을 디자인한 것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사업체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마야와 아즈텍 문화의 디자인과 심볼을 이용한 실크 타이, 가방, 쿠션 등은 해외에서 특히 박물관 상점과 전문 부띠끄에서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¹⁵⁾<그림2-5>.

IV. 결론

본 연구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세계화 속에 나타

나는 문화의 변화를 하이브리드의 시각으로 고찰하였다. 지역별 문화의 하이브리드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분석하였으며, 특히 문화를 대변하는 여러 복식 스타일 중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 자문화의 하이브리드로 나타나는 복식을 통해 문화의 변화를 보는 시각과 원인, 복식의 형태와 의미의 변화를 분석하고, 복식으로 표현되는 현시대 자문화의 새로운 상징이나 형태, 다양한 문화 표현 방식을 고찰하여 현대패션에서의 바람직한 문화 하이브리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사례를 분석하기에 앞서 진행한 세계화속에 나타나는 문화 하이브리드의 특성과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하이브리드 경향을 고찰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하이브리드는 문화적 차이와 세계화 과정은 상호 의존적이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지역과 정체성을 초월한 탈영토화된 문화적 혼합, 글로컬리제이션, 민족 고유 양식의 변화, 글로벌 보편주의 등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으로 세계화 속에 나타나는 문화 변화의 속성은 하이브리드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문화 하이브리드의 특성은 글로벌 하이브리드와 구조적 하이브리드로 고찰되었다.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문화의 지역 경계가 사라지고, 세계 문화를 글로벌 혼합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문화가 양식적으로

비슷함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구조적 하이브리드는 한 문화 내부에서 '지역 문화의 형태가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다른 관습의 새로운 형태와 결합하는 것'으로, 세계화 시대 자신의 지역적 특성을 주장하면서도 글로벌한 차원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에도 역시 동참하길 원하는 의식 변화와 함께 세계화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지역내, 국가 내부의 전통 문화의 형태적 변화를 의미한다.

셋째,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 하이브리드 경향은 지역별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해석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의 문화 하이브리드는 자문화의 고유성을 역설하고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선택되고 의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문화 하이브리드는 아프리카의 발달을 저해한 노예제도와 유럽 식민주의, 전통적인 사회 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하이브리드는 오랜 식민지의 경험, 독립 이후에도 미국의 인접국으로 서구의 신식민지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부여된 운명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지역별로 문화 하이브리드의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는 다르나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문화 하이브리드로 나타나는 전통의 변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사회적 변화를 묘사하기 위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 하이브리드는 4대 컬렉션과 지역별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사례로 고찰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글로벌 하이브리드는 2000 S/S에서 2005 F/W 세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하이브리드 경향을 통해 고찰하였다. 최근까지도 이국풍의 이미지는 서구의 시각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현재까지 패션의 출발지로서 파리, 밀란, 뉴욕, 런던은 가장 중요한 패션 도시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의 페이즐리, 중국의 치파오와 용문양, 일본의 기모노와 오비, 아프리카의 장신구, 라틴 아메리카의

관초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4대 컬렉션에서 활용하는 지역 문화 요소는 이러한 지역 문화를 세계인의 문화 요소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구조적 하이브리드는 2000 S/S에서 2005 F/W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구조적 하이브리드 경향으로 고찰하였다. 세계적인 트렌드와 연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고유의 문화와 연결되는, 지역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고정된 지역문화의 카테고리로부터 벗어난 작품으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패션이 세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미 특정 지역의 디자이너라는 라벨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할 만큼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수의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배경에 뿌리를 둔 작품으로 세계 패션에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서, '글로벌', '로컬' 패션의 분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세계 컬렉션을 통해서 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지역별 패션 주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2보>에서는 현대패션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전통과 문화에 대한 탐구로 나타나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문화 하이브리드 경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연구를 통해 현시대 문화의 새로운 상징과 문화 표현 방식, 의미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Teunissen, Jose. (2005). *Global Fashion/Local Tradition*. Terra. pp.6-7.
- 2) Pieterse, Jan Nederveen. (2004). *Globalization & Culture*. Rowman & Littlefield. United Kingdom. p.64.
- 3) 남궁민지 (2000). 일본 전통 복식 요소가 현대 일본 패션에 미친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 (2002). 현대패션에 재현된 전통복식의 기능미와 장식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성희진 (2002). 근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문화 접변에 따른 전통복식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박상오 (2002). 오리엔탈리즘이 현대패션 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승미 (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수정 (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 이미지 비교 분석.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Pieterse, Jan Nederveen (2004). p.53.
 6) Pieterse, Jan Nederveen (2004). p.71.
 7) Pieterse, Jan Nederveen (2004). p.89.
 8) Pieterse, Jan Nederveen (2004). p.56.
 9) Pieterse, Jan Nederveen (2004). p.37.
 10) Pieterse, Jan Nederveen (2004). pp.154-155.
 11) Teunissen, Jose (2005). p.21.
 12) Teunissen, Jose (2005). p.87.
 13) Teunissen, Jose (2005). p.51.
 14) Teunissen, Jose (2005). pp.15-19.
 15) Teunissen, Jose (2005). p.9.